

## 프란치스칸 보살핌의 문화

**이밖에도 회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각인을 지닌" 모든 피조물,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 프란치스코께서 지녔던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OFS 회칙, 제 18 조)**

우리가 세계적 가족 (global family)으로서 가장 도전적이고 전례 없는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0 년은 도전적이었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기준에 부름 받은 해였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어머니 자매인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로 위의 차와 탄소 배출량, 대기 오염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의도적인 보살핌은 아니었습니다.

제 54 회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돌봄의 문화를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2020 년은 평화가 거의 없는 해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인종 격변과 경제적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선 캠페인 중 정치적 긴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COVID-19 로 고통받는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보는 첫 번째 대응 자와 일선 의료진을 목격했습니다. 이 돌보는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되돌아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창 4:9).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가인도 "그의 형제를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징으로 가득 찬 이 고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삶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형제애, 정의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함과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느님은 궁극적인 관계인 삼위일체를 모델로 삼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에서 보살핌의 문화가 완전히 알려지게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사이의 사랑과 보살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도적인 보살핌과 이해의 정신을 나타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비난의 손가락을 가리 키지 않고, 보살 피고 이해하며 자비와 연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 회칙인 Fratelli Tutti (모든 형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경에서 매우 친숙한 또 다른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 인의 유명한 비유를 되돌아봅니다. 이 비유는 궁극적인 보살핌과 연민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이 돌봄의 문화의 예는 진정으로 평화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구타당하고 자신의 필요에 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길가로 지나쳤고, 그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고 시간을 내지 않았고 재빨리 그를 잊었습니다.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의료진은 이 전염병 동안 사마리아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최초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들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타당한 사람을 즉시 의도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의 수호자로 부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편리하거나 안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에는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들이 그당시의 추방자임을 알고 나병 환자를 자발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회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계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았습니까* (제 14 조). 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칙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공동체 의식은 그들을 즐겁게 해 줄 것이며,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3 조).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전임 간병인이 되어 2019 년에 뇌졸중을 앓고 2020 년에 두 번째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전임 간병인이 되면서 이 사실을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자매들의 마음 챙김과 자비로운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가장 자비로운 행동 중 하나는 간병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탈진과 피로에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나는 프란치스코 가족에 의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군대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팔을 들기에는 너무 피곤했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의 팔이 피곤 해지자 그의 백성은 군대가 승리하도록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참조, 출 17: 8-13).

저는 프란치스코 가족의 돌봄의 문화에 진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팔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 혹은 자매의 팔이 피곤할 때, 우리는 그들을 지탱하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서 보살핌과 연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돌봄의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은총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